한국칸트학회 2023년 하계 학술대회

칸트와 감정의 문제

일시: 2023년 6월 3일(토), 13:00~17:20

장소: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청운관 619호

한국칸트학회 회원 선생님들께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한국칸트학회 2023년 하계학술대회>의 일정을 공지해 드리고자 메일을 드립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칸트와 감정의 문제'라는 주제로 경희대학교 비폭력연구소와 공동으로 주최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의 일정과 프로그램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각 발표의 초록도 첨부파일로 보내드립니다). 회원 선생님들의 많은 참석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회장 : 김한라
부회장 : 이진오, 이원봉
편집이사 : 강지영
연구이사 : 김형주
총무이사 : 오창환(010-2226-1405)
학술교류이사 : 백승환
편집간사 : 정선아(010-2361-2919)
총무간사 : 신창화(010-3834-7382)
회비계좌 : 우체국 501072-02-293482 오창환
한국칸트학회 홈페이지 : http://www.kantgesellschaft.co.kr
한국칸트학회(편집부 &총무부) 이메일 : kantsarag@naver.com

<한국칸트학회 연회비 안내>
전임: 5만원 / 비전임: 2만원
한국칸트학회는 다른 외부 지원금 없이 학회 회원 선생님들의 회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회비 납부로 학회 운영에 힘 보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국칸트학회 2023년 하계 학술대회

칸트와 감정의 문제

- 일시: 2023년 6월 3일(토) 13:00 ~ 17:20
- 장소: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청운관 619호
- 주최/주관: 경희대학교 비폭력연구소/한국칸트학회

	시 간	대회 내용	사 회
	13:00-13:10	**입회 및 등록**	오창환 (전남대)
	13:10-13:20	**개회** ◈ 개회사 : 김한라 (서강대학교) ◈ 환영사 : 허우성 (경희대학교)	
1부	[제1발표] 13:20-14:05	**유교 윤리는 의무론인가, 덕 윤리인가? – 측은지심을 중심으로** ◈ 발표 : 정재현 (서강대학교) ◈ 논평 : 박승현 (원광대학교)	이진오 (경희대)
	[제2발표] 14:05-14:50	**칸트 철학에서 혐오 감정** ◈ 발표 : 고현범 (호남대학교) ◈ 논평 : 조명현 (고려대학교)	
	14:50-15:05	휴 식	
	[제3발표] 15:05-15:50	**칸트 종교철학에서 근본악과 최고선의 문제** ◈ 발표 : 정제기 (영남대학교) ◈ 논평 : 강준호 (경희대학교)	강지영 (서울시립대)
	15:50-16:05	휴 식	
2부	16:05-17:05	**종합 토론**	이원봉 (가톨릭대)
	17:05-17:20	**기념촬영 및 폐회** ◈ 폐회사 : 김한라 (서강대학교)	오창환 (전남대)

* 각 발표 당 발표시간은 35분, 논평시간은 10분 내외로 배정되었습니다.

한국칸트학회 2023년 하계학술대회: <**칸트와 감정의 문제**> 발표 초록

[제1발표]

유교 윤리는 의무론인가, 덕 윤리인가? – 측은지심을 중심으로

정재현 (서강대학교 철학과)

이 발표에서 나는 유교 윤리가 서구의 의무론이나 덕 윤리와는 다른 윤리체계이고, 이는 덕, 인간 본성, 이성, 감정의 개념과 관련지어 그러하다는 점을 보일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개념들을 관통할 수 있는 것이 유교의 측은지심이므로 이 발표는 유교의 측은지심의 해석을 둘러싸고 유교 윤리가 서양의 윤리체계가 다른 점을 보여줌은 물론이고, 이른바 도덕 감정의 위격을 둘러싼 다양한 견해를 노정하려고 한다.

유교 윤리를 서양의 의무론으로 보는 해석은 측은지심을 실천이성이나 선의지와 연결시킨다. 측은지심은 흔히 생각하는 도덕 감정이 아니라, 도덕적 삶을 가능하게 하는 일종의 선험적 조건, 즉 실천이성의 명령, 선의지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의 장점은 단순히 유교 윤리만이 아니라 칸트 윤리에 있어서 감정의 긍정적 역할을 더욱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유교의 측은지심에는 실천이성이나 선의지와 연결되어 거론될 수 있는 자유의지, 선택과 같은 요소가 부재한다는 점에서 약점을 지닌다.

유교 윤리를 덕 윤리의 일종으로 보는 해석은 측은지심을 일종의 도덕 감정이나 자연 감정으로 보고, 이러한 감정들이 도덕적 삶 혹은 덕의 주요 토대임을 더욱 잘 드러내는 장점이 있다. 유교의 측은지심은 아리스토텔레스적 덕 윤리를 통해서 볼 때, 실천적 지혜를 기다리는 성품적 덕과 같은 위격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반면 흄과 같은 정서적 덕 윤리를 통해서 보면 유교의 측은지심은 일종의 자연 감정으로, 이러한 해석은 도덕적 삶을 영위함에 있어서 인간의 자연 정서가 갖는 역할을 부각시켜 준다. 하지만 실상 유교의 측은지심은 도덕 감정과 자연 감정의 두 측면을 다 가지고 있다. 측은지심의 도덕 감정은 타인의 자연 감정에 공감하는 것이다. 측은지심의 이러한 성격은 유교의 측은지심이 지향하는 덕이 서양의 덕 윤리에서처럼 인간이 추구해야 할 목표로서의 인간 본성과 같은 이성적 사실이나 인간의 자연적 본능과 같은 객관적 사실을 가리킨다기보다, 사회 정치적 안정이라는 목표를 두고 추진되는 일종의 전략, 즉 자기 희생을 통한 평화로운 문제 해결방식을 가리키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예견된다.

[제2발표]

칸트 철학에서 혐오 감정

고현범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혐오에 대한 칸트의 기본적인 관점은『인간학』에서 등장하는 “매우 강한 생명 감각”이라는 구절에서 간결하게 표현된다. 매우 강한 생명 감각으로서 혐오는 신체적 감정이며 감관에 의한 불쾌다. 칸트에게서 혐오는 또한 상상력에 의한 불쾌, 즉 미학적 감정이기도 하다. 혐오에 대한 최초의 근대 철학적 접근은 슐레겔로부터 멘델스존, 레싱 그리고 헤르더로 이어지는 미학에서 혐오 논쟁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 글에서는 칸트 철학에서 인간학적이고 미학적인 혐오가 갖는 의미를 논의했다. 감정, 특히 도덕철학에서 연민과 같은 도덕 감정의 역할에 대한 칸트의 인색한 입장은 표준적이고 신스토아적 인지주의의 입장에서 보면 불만스럽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도덕 감정에 대한 칸트의 신중한 입장이 혐오 옹호론과 회의론으로 양분된 도덕적 혐오 논의에서 또 다른 논의의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는지를 검토했다. 즉 칸트에게서 혐오 감정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감정으로 간주되지 않지만 도덕적 갈등 상황에서 도덕적 행위의 동기를 제공하는 일정한 역할을 담당한다.

[제3발표]

칸트 종교철학에서 근본악과 최고선의 문제

정제기 (영남대학교 철학과)

이 글에서 나는『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1논고」에서 논의되는 근본악 이론이『실천이성비판』의 윤리학적 테제들을 계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도덕성과 행복의 결합이라는 최고선의 문제로 이해될 수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종교론』이 당대 계몽주의자들뿐만 아니라 교회 당국 양자로부터 동시에 비판을 받았다는 사실은 매우 잘 알려져 있다. 또한, 영미권의 칸트학자들 중 상당수가 칸트의 윤리학-종교철학에서 종교적인 색채를 제거해야만 칸트의 근본의도가 잘 드러난다고 주장해왔다는 사실 또한 매우 잘 알려져 있다. 이러한 연구 경향들은 칸트 종교철학 이론이 칸트 실천철학 체계와 체계적 정합성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상당 부분 부정한다. 이러한 연구사적 맥락들은 칸트 연구자들로 하여금 칸트 종교철학이 비판철학적 체계 내에서 지닌 중요성을 주목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러나 『종교론』에서 제시된 칸트의 종교철학 이론이 『실천이성비판』의 최고선의 문제와 밀접하게 관계된다는 것은 이미 『종교론』 곳곳에서 드러나는 칸트의 직접적인 언급에서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종교론』에서 최고선 개념을 칸트가 직접적으로 언급한 대목은 초판의 「머리말Vorrede」과 「3논고」이다. 특히 초판의 「머리말」은 도덕적인 인간으로서는 “자신의 올바른 행위로부터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에 대해 도저히 무관심할 수 없”기 때문에, 도덕성과 행복의 결합이자, 이 세계에서 최고선의 이념이라는 목적을 추구해야만 한다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최고선의 이념의 가능성을 위해 오직 “더 높고, 도덕적이며, 최고로 신성하며 전능한 존재자”, 즉 신을 상정해야만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다(Rel., VI5). 이는 『종교론』의 최고선 개념이 이 세계에서 도덕성과 행복의 결합으로 제시된다는 점, 그리고 최고선이 가능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기 위해 신이 전제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면서 도덕신학적 논의로 확장된다는 점에서 『순수이성비판』이나 『실천이성비판』의 최고선 이론의 도식과 크게 다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앞선 논의를 발전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초판의 「머리말」에 이어 「3논고」를 살펴보면, 여기에서 칸트는 최고선을 “공동체적 선gemeinschaftliches Gut”으로 규정하면서, 도덕적 개인의 차원에서 논의되던 최고선을 윤리적 공동체인 “최고의 윤리적 선” 개념으로 확장하여 전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Rel., VI97-98).

그렇다면 우리는 「머리말」과 「3논고」 사이에 존재하는 최고선 개념의 이러한 간극을, 다시 말해 도덕적 개인의 차원에서 제시되는 최고선과 공동체적 차원의 최고선 개념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여기서 우리에게 가능한 것은 「1논고」와 「2논고」를 최고선 문제와는 완전히 분리된 독자적인 종교철학적 논의로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3논고」에서 다루어지는 공동체적 지평으로 확장된 최고선 개념에 대한 논의들을 이미 「1논고」와 「2논고」가 예비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뿐이다.

이 점에서 나는 「1논고」를 희망철학적인 방식으로 분석함으로써, 근본악 이론이 도덕성과 행복의 결합이 어떻게 마치 가능한 것으로 사유될 수 있는지를 드러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이 성공할 경우, 우리는 작게는 초판의 「머리말」과 「3논고」사이에 존재하는 최고선 개념 사이의 간극을 메울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실천이성비판』 등에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제시되는 최고선의 문제가, 어떻게 윤리적 공동체로서 최고선의 문제로 확장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결국, 칸트 종교철학 이론이 단순히 칸트의 비판철학적 사유에서 배제되어야만 하는 당대 기독교 교리에 함몰된 이론이 아니라, 윤리적 공동체로서 최고선에 대한 사유를,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영구평화를 지향하는 최고의 정치적 선을 지향하는 이론임을 드러낼 것이다.